

지금 제주는 안녕한가요?

환경 뉴스로 알아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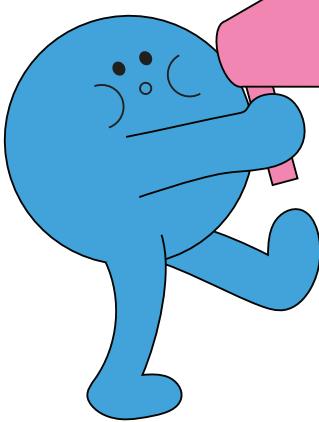
JEJU



지금 제주는 안녕한가요?

환경 뉴스로 알아보는

★ JEJU ★



(사)제주환경교육센터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of Jeju



contents

"인류는 자연을 기대어 진화해왔습니다.
그러나 필요를 넘는 착취는 인간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실현 가능한 목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제주를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주는 안녕한가요?



News 1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일본 대사관 찾아
“핵오염수 방류 철회하라” 촉구

04



News 3

월정리 해녀회,
문화재청 담당자 면담
“증설공사 강행 즉각 중단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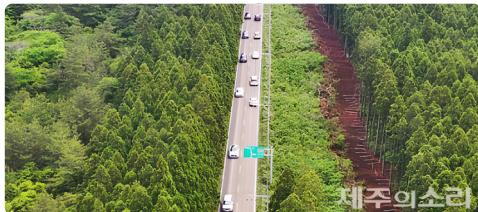
10



News 2

제주 비자림로의 운명은?
도로구역 백지화소송
15개월만에 선고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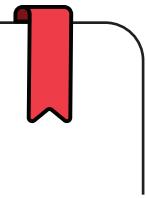


News 4

제주지역 빛공해 심각..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 수두룩

15





News 5

어승생, 정수장 물 부족 해결
지하수 개발 추진 '논란'

18



News 6

News 6

"행복하게 지내"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고향 제주 바다로

22



News 7

제주 해안쓰레기 수거했더니
플라스틱 스티로폼 파편
가장 많아

26



News 8

News 8

일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계속 쓴다 '규제 철회'

31



News 9

제주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 소송단 항소

35



News 10

원형 훠손—생태계 파괴 논란
'천미천' 하천정비 중단

38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일본 대사관 찾아 “핵오염수 방류 철회하라” 촉구

함광렬 기자 2023.2.15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이 15일 오전 주제주일본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은 15일 오전 주제주일본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언제까지 문제가 없다는 거짓 변명만 늘어놓으며 유엔 해양법협약을 위반하고 제주의 해양환경을 훼손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계획을 밀어 붙일 생각이냐”며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해양법협약 제194조 2항에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나라가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 방사능오염 및 오염수 해양 방류 실태’ 논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다핵종제거 설비를 활용해 여과해낸 소위 ‘처리수’의 경우,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여 해양 생태계와 인간의 신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며 “트리튬은 방사성 물질을 제거 할 수 없는 것으로 체내에 유입되었을 때 내부피폭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18년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핵종마저도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 졌으며 다핵종제거설비로도 제거할 수 없는 탄소14가 유전자를 훼손시킨다는 문제 역시 부상하고 있다”며 “오염수가 방류돼 이유를 알 수 없는 암 발생수가 갑자기 늘어나고 불임 되고 기형아가 나오는 상황이 온다면 누가 어떻게 이 위험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피스는 육상탱크에 보관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제언했다”며 “그럼에도 그저 시간과 돈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원전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일본의 이미지 회복만을 위해 주변국들에게 불안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구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인류 모두가 지켜야 할 삶의 터전”이라며, “이를 구성하는 육지와 바다, 그 곳에서 살아가는 생물들 그리고 인간들은 일본의 것도, 도쿄전력의 것도 아닌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존엄한 존재”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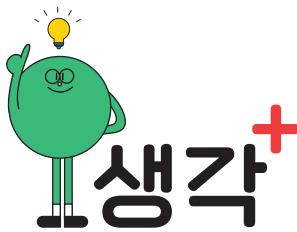
한편,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회견문과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서한 등을 일본 영사관에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제지로 이뤄지지 않았다.

[출처: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알아두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해 10일동안 7788톤을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했다. 이어 10월 5~23일 사이 다시 7800톤을 2차 방류했다.

알프스(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의 약자로, 원전 오염수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 및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가동되고 있으며,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내 일종의 정수기 역할을 수행한다.



- # 알프스(ALPS)로 오염수를 걸러서 방류하니까 안전하다?
- # 커피 한 잡에 삼중수소 4900Bq, 바나나에 6000Bq만큼의 자연방사성 물질 들었으니 오염수의 삼중 수소 1500Bq는 안전한 수치다?
- #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은 수입금지하고 있어 안심, 일본산 수산물은 안전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해

VS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위험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2개)

⑥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⑦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주 비자림로의 운명은? 도로구역 백지화 소송 15개월만에 선고

이동건 기자 2023.3.26.

- | 28일 도로구역결정무효확인 선고 기일
- | 원고적격-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쟁점'



논란의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구간모습 _ 사진 ©제주의 소리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의 운명을 가를 행정소송이 선고를 앞두면서 도민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숙 수석부장)는 오는 28일 A씨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결정무효확인'소송 선고공판을 예정했다.

원고 A씨등 10명은 2021년 12월 3일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계획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어 전면 백지화 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림로(대천~송당)확·포장 공사는 총사업비 242억원이 투입돼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km 구간을 최대 왕복 4차선으로 늘리는 사업이며, 이번 소송의 쟁점은 원고 적격과 부실 논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적정성 여부다.

원고적격은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원고들의 주장이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된다.

A씨 등은 환경권은 시민의 권리와도 연관돼 제주도민이라면 원고적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피고 제주도 측은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로 A씨 등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원고들이 입증해야만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고적격 문제를 떠나면 쟁점은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계획 수립 과정에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의 적정성 여부다.

2018년 8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가 시작되면서 삼나무 훼손 논란과 함께 법정보호종 동·식물 논란으로 수년째 공사 재개, 중단이 반복됐다.

원고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맡은 업체가 과태료와 영업 정비 처분을 받을 정도로 용역이 부실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달리 비자림로 인근에서 법정보호종인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가 발견되는 등의 논란이 잇따라 부실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사업 계획 마련은 위법해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원고 제주도 측은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 환경청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보안이 이뤄져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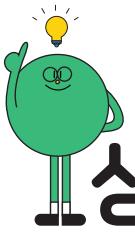
지난해 6월 첫 변론을 시작으로 1년 가까운 기간 5차례 법정 공방을 지켜본 1심 재판부가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제주의 소리(<http://www.jesusori.net/>)]

알아두기

제주비자림로: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와 제주시 봉개동 사이의 27.3km의 2차선 도로로 2002년 ‘제1회 아름다운 도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길 양 옆으로 하늘로 곧게 뻗은 삼나무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생각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삼나무 훼손 및
법정보호종의 피해가 높아
중단되어야 해

VS

도로통행을 원활히 해야 하므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추진되어야 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④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2개)

④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④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월정리 해녀회, 문화재청 담당자 면담 “증설공사 강행 즉각 중단하라”

서보기 기자 2023.4.27.

| 27일 오전 11시 30분 문화재청 정문 앞 기자회견



월정리해녀회 문화재청 앞 기자회견 _ 사진 ©뉴스라인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월정리 해녀회가 컨테이너에서 농성을 하는 등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월정리 해녀회는 4월26일 문화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월정리 해녀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제기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의혹 상당수가 사실임이 확인됐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대해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으므로,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관련 용역을 예정 중에 있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서 진행 중인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부지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인 용천동굴, 당처불동굴 문화재 인근에 위치한다.

이에 김영숙 월정리 해녀회장을 비롯해 강순희(구좌읍여성농민회장) 엄문희(제주난개발 저항연대 대표) 현애자(아름다운공동체 제주인 대표/ 17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강순아(정의당 제주도당 민생현안대응위원장) 등은 26일 문화재청을 방문, 천연기념물과·세계 유산과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월정리 해녀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그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용천동굴, 당처물동굴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서면으로만 단순 검토, 허가되어 문제라는 것.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운영지침에 따라 안건을 구분한 것 뿐”이라며, 문화재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될 가능성이 높은 용천동굴 하류구간에 합당한 심의는 문화재위원회 회의인데, 서면으로 단순 허가 처리해버린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월정리 해녀회는 “용천동굴 옆 상수도관을 단순 교체하는 작업에도 문화재위원회 회의는 열렸었다. 그런데 일일 하수처리량 1만2000톤 규모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것에는 왜 유독 문화재위원회 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것인가”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 면담을 통해 문화재청의 ‘선 용역, 후 검토’라는 견해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제주도가 진행 예정인 용역의 성격이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한 용천동굴의 변화 수치를 과학적으로 측정 △문화재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세계유산등재 지역의 적정성 검토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미치는 진동영향, 지표수 역량에 따른 범위 역량 등을 위한 것임을 밝혔다.

이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전, 문화재영향검토를 진행한 후 공사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의 용역이다. 해당 용역은 그 성격상 공사 전, 시행되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월정리 해녀회는 “해당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사를 당장 중단시키는 것이 문화재청의 추가 직무유기를 면하는 것”임을 알렸다.

또 이날 문화재청 관계자는 용천동굴 하류구간에 대한 세계자연유산 등재 필요성을 인정했다. 관련 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등재 추진 또한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질적인 등재 추진까지는 시일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허가 과정에서 이뤄진 공문서 위변조, 허위작성 등 의혹 문제도 거론됐다.

월정리 해녀회는 제주도가 당처물동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용천동굴 하류구간을 문화재가 아닌 것처럼 수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문화재청에 물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 사실을 몰랐다면서, 내용을 다시 검토하겠다 밝혔다.

이날 30~40여분 간 진행된 면담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행정의 불법, 위법 정황들이 많다. 이에 월정리 해녀회는 아래 7가지 최우선 의혹, 문제에 대한 답을 문화재청장에게 요구한 상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청장에게 해당 사안을 전달, 빠른 시일 내(민원 답변 기간인 3주 내) 답을 줄 것을 확약했다.

월정리 해녀회 요구 및 질의사항

1. 용천동굴을 위협하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아래 사항을 이행하라
2.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현상변경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세계유산 분과위원회,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심의·협의 하라.
3. 용천동굴 하류와 하수처리장 존재를 유네스코에 보고 하라. 용천동굴 하류와 제2당처물 동굴(남지미) 유네스코 등재하라.
4. 동부하수처리장 관련, 용천동굴 하류(D지역) 등 동굴 내 천장붕괴 지역에 대한 동굴 피해·실태조사하라. 동부하수처리장 주변의 미조사 구간에 대해 동굴조사 하라.
5. 진행 중인 용역 조사 위원에 월정해녀회와 시민연대 추천인사를 포함하라.
6. 용천동굴, 당처물동굴의 완충구역을 세계유산법 11조에 따라 설정하라.
7. 동부하수처리장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내 불법시설(문화재 심의 없이 증축·개축된 시설)에 대해 자연환경 회복시행하라 등이다.

한편, 월정리 해녀회는 면담에 앞서 오전 11시30분 문화재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뉴스라인 제주(<http://www.newslinejeju.com>)]

알아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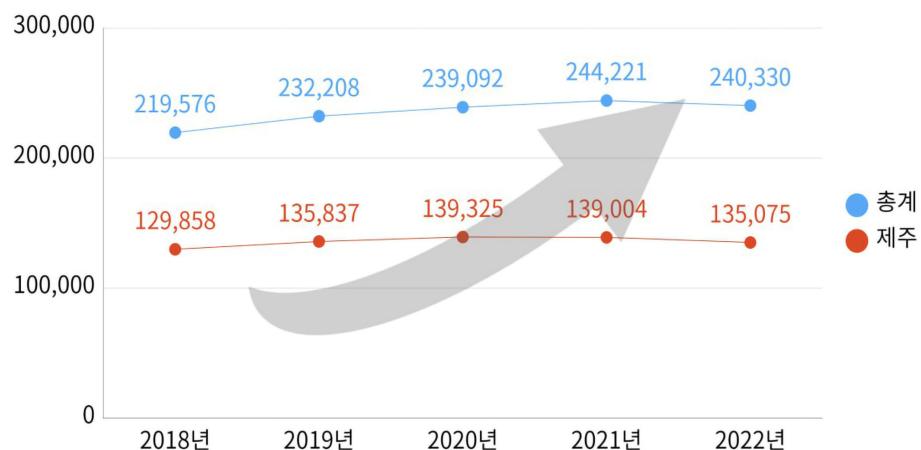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 용천동굴은 제주도 용암동굴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대형 동굴(총길이 약 2,470.8m+α)로서 약 140m 길이의 용암두루마리를 비롯한 용암단구, 용암선반, 용암폭포 등의 미지형 및 생성물이 특징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 특히, 종유관, 종유석, 석주, 평정석순, 동굴산호, 동굴진주 등 탄산염생성물이 다종·다양하게 발달하고 대규모의 동굴호수가 있는 등 특이한 용암동굴로서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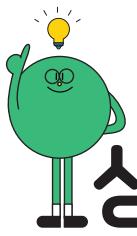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굴은 벵뒤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그리고 당처물동굴이다.

제주하수처리량 현황

제주에는 제주, 동부, 서부, 보목, 색달, 대정, 남원, 성산에 총 8개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제주의 하수 처리의 50%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제주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하수처리장 일평균 하수처리량





생각+



하수처리장과 같은
기초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님비(Nimby)현상이야.

VS

기초 시설이라도
적절한 장소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④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2개)

④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④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주지역 빛공해 심각..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 수두룩

강재병 기자 2023.5.29.

| 제주도, 빛환경관리계획 수립 용역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 공간조명 26.1%, 광고 조명 35%, 장식조명 61.5% 기준초과



사진 ©제주일보

가로등과 간판, 장식조명 등의 빛공해 기준을 상당수 초과하는 등 제주지역의 빛공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전역을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고, 빛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빛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최근 공개한 ‘빛환경관리계획 수립 용역’에서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과 광고조명(허가대상 옥외광고물), 장식조명(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건물) 등을 대상으로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상당수가 빛공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제주도 면적의 99.2%인 2034.5㎢를 용도지구별로 4종으로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조명은 용도지구별로 각각의 허용기준에 맞춰야 하며,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3년 유예기간 동안 허용기준에 맞는 조명으로 개선해야 한다.

공간조명은 측정개수 119개 중 26.1%인 31개가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지역은 초과율이 50%에 달했다.

광고조명은 측정개수 351개 중 35%인 123개가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했고, 보전녹지지역 등은 초과율이 최고 94.4%로 조사되기도 했다. 장식조명은 52개 중 61.5%인 32개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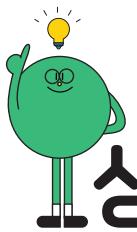
행정시별로는 공간조명은 제주시가 28.1%, 서귀포시가 17.4%의 초과율을 나타내 제주시의 초과율이 더 높았다. 또한 인구밀도 순위가 높은 지역일수록 초과율이 높게 나타났다.

광고조명은 서귀포시가 55.9%로 제주시(30.9%)보다 초과율이 높았고, 장식조명도 서귀포 시가 65.4%로 제주시(57.7%)보다 초과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적으로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은 제주시가 31.1%, 서귀포시가 50.4%로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서귀포시지역이 허용기준이 강화된 1종 지역(보전녹지, 자연환경보전, 자연녹지 등), 2종 지역(생산녹지, 농림지역 등) 비중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5년 단위 빛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빛공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명 개선 사업 추진, 사전 빛공해평가제도 도입, 빛공해 관련 교육 확대 방안과 함께 빛공해 개선 우선지역 선정 등이 제시됐다.

[출처: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생각



제주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화려해야 해

VS

과도한 빛은
이미 공해가 되고 있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④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2개)

④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④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승생 정수장 물 부족 해결 지하수 개발 추진 ‘논란’

고대로 기자 2023.9.21.

| 제주도 대흘·교래·안덕면 광평지구 취수원개발



어승생 수원지 _ 사진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어승생정수장 취수량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한라산 중산간 지역 지하수 개발을 추진한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이달 제주 동부지역(대흘·교래)과 안덕면 광평지구 취수원 개발사업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부터 4개월이다.

이곳의 취수원 개발이 이뤄질 경우 극심한 가뭄시 이뤄지고 있는 어승생정수장 제한급수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제주도는 예측하고 있다.

어승생정수장은 Y계곡 수원지(취수량)와 저수지(저수량)의 물을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내 중산간 지역 17개 지선, 급수인구 1만 7800명을 대상으로 하루 1만 1000t 내외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17개 지선은 제주고, 열안, 산천단, 월평, 절물, 교령동, 교래, 와산, 대천동, 해안, 광령, 유수암, 원동, 발이악, 이시돌, 금악, 광평리 지역이다.

어승생 정수장은 극심한 가뭄시에는 취수량이 급감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여름 90년 만에 발생한 29일 간의 가뭄으로 어승생 계곡 용출량이 감소하면서 고지대인 중산간 지역 11개 마을은 18일 동안 격일제 급수로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문제는 이후로도 한라산 중산간 지역 추가 취수원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것, 성산읍에 제주 2공항이 들어설 경우 인구 유입 증가에 따라 중산간 지역 추가 취수원을 개발해야 한다.

성산읍 지역은 남원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현재 대정·한경·한림·조천읍 지역의 지하수는 질산성 질소로 오염돼 이곳의 지하수 개발은 더 이상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 동부 해안 지역은 염분이 침투해 지하수 식수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하수 오염이 이뤄지지 않은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 취수원을 개발해야 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2013년과 2017년도에 어승생 수원지가 가물어 계속 제한급수를 하면서 중산간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어승생 수원지 보충수 개념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내 한 지하수 전문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하수 함양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수자원을 우선 활용하는 정책으로 가야 하고 지하수 개발은 최후 수단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한라일보(<http://www.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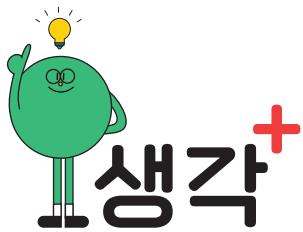
알아두기

지하수: 지표면 밑을 흐르는 물을 이르는 말이다. 지하수는 전 세계 민물에서 20%정도를 차지하며 이는 바다와 영구적인 얼음을 포함한 전 세계 물의 0.76%에 해당한다. 지하수는 자연적인 물의 순환에서 저수지로 표현할 수 있다.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 대기와 깨끗한 지표수가 있다. 화산섬 제주는 빗물이 지하로 흘러내려가는 지질학적 특성으로 강이 없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물의 90% 이상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다면



<https://jgwrc.re.kr>



늘어나는 물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은
어쩔수 없는 일이야

VS

제주의 지하수는
무한하지 않은 자원이야
더 이상의 지하수 개발은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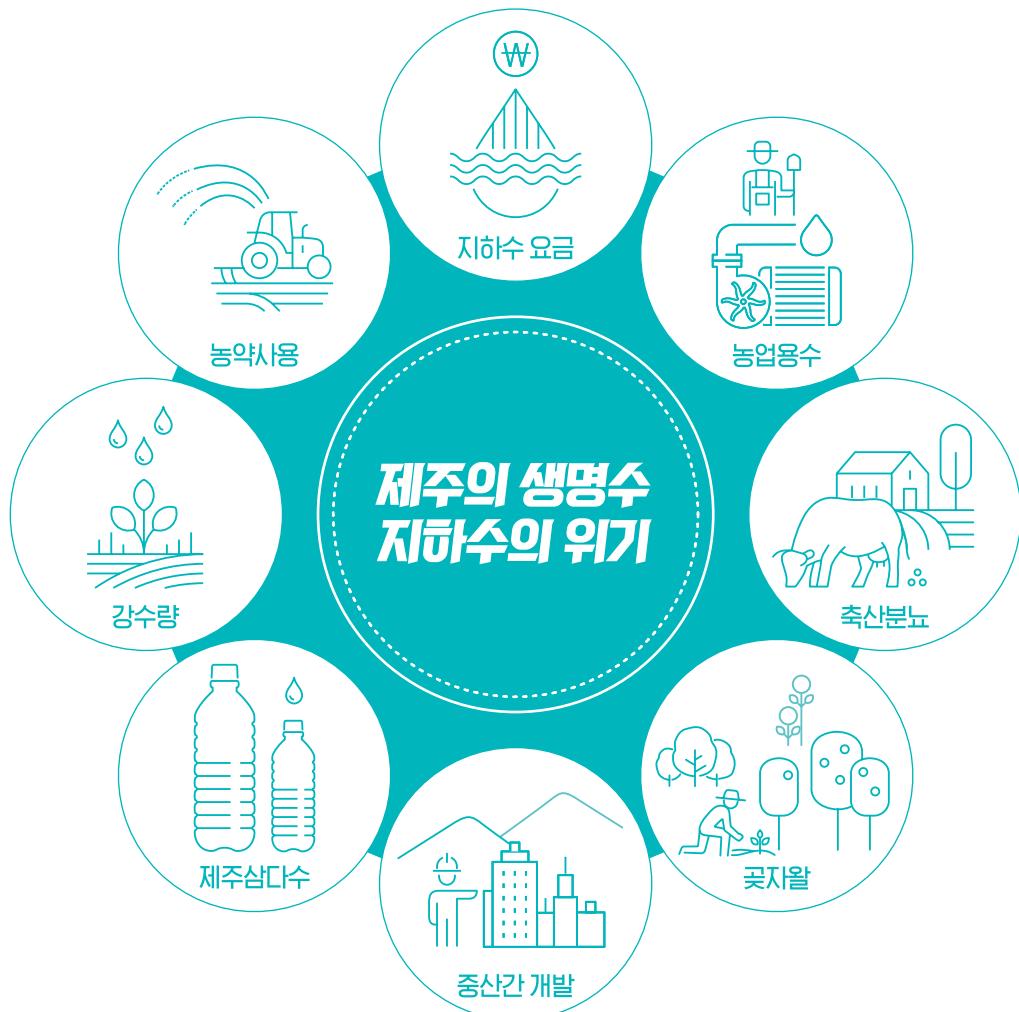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④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2개)

④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④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주의 생명수, 지하수와 관련된 8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모둠별로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하여 위기에 처한 지하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발표해 봅시다.



“행복하게 지내”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고향 제주 바다로

김재연 기자 2022.10.16.

| 70일간 야생적응훈련종류 16일 해상방류...관리지속



제주 바다로 방류된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_ 사진 ©해양수산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약 70일간의 야생적응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고향 제주 바다로 돌아갔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설치된 해상 가두리에서 비봉이가 방류됐다.

앞서 비봉이는 지난 8월 방류 계획 수립 이후 해상가두리로 옮겨져 야생적응훈련을 받았다.

훈련 기간 비봉이는 빠른 조류와 높은 파도 등 제주 연안 바다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있는 물고기 사냥에도 익숙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야생 돌고래 무리와 접촉하며 의사소통하는 음파가 지속적으로 포착됐고, 물 위로 떠올라 떨어질 때 몸이 수면에 크게 부딪혀 소통하는 모습도 관찰됐다.

해수부는 비봉이의 위치와 이동상황, 생존여부 및 건강상태, 야생 무리와의 동행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소 한 달은 육상 3개팀, 선박 2척 등을 활용한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비봉이가 야생에 잘 적응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해수부는 다음 단계인 ‘정기모니터링’단계로 전환, 최소 6개월간 비봉이 상태를 관찰할 방침이다.

만약 모니터링 과정에서 비봉이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재포획해 수족관에서 다시 보호·관리하게 된다.

재포획 이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방류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비봉이가 17년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해양 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비봉이 방류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록을 향후 관련 연구 및 학술자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 자료와 백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알아두기

비봉이: 비봉이는 성체가 되기 전(당시 4~5세의 나이)비양도 앞바다에서 포획되어 호반 퍼시픽리솜(옛 퍼시픽랜드)에서 17년간 돌고래쇼에 이용되었던 남방큰돌고래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다면



<http://hotpinkdolphin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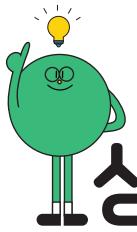
<http://jejuanimalnow.org>



<https://projectmoonbear.org>



<https://www.ekara.org>



생각

동물원, 야쿠아리움은
동물과의 친밀감을 높여주고
교육적 효과도 있어.
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VS

동물들도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돌고래 쇼를 봐.
그들은 행복하지 않아.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④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2개)

④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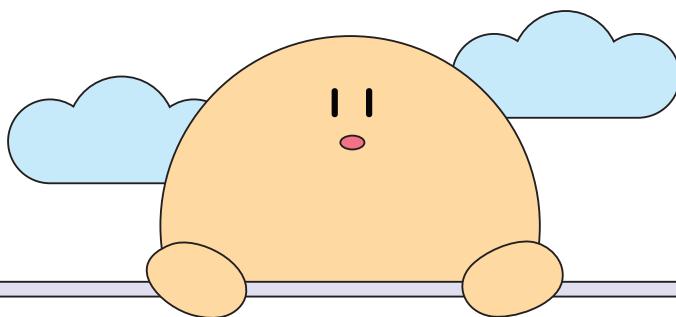
④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후속 취재 기사 쓰기

고향 바다로 돌아간 ‘비봉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기사쓰기 TIP

- #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
- # 육하원칙에 맞추어 쓰기.
- # 사실관계 위주로 서술하고 형용사와 부사의 사용은 자제하기
- # 간결하게 작성하고 단문으로 표현하기



제목쓰기

○ ○ ○ 기자

본문쓰기

제주 해안 쓰레기 수거했더니... 플라스틱 스티로폼 파편 가장 많아

함광렬 기자 2023.10.24.

| 제주환경운동연합, 2023 제주줍깅 캠페인 조사 결과 발표



2023 제주줍깅 캠페인 _ 사진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에서 가장 많이 수거되는 해양쓰레기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파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6회에 걸쳐 구좌읍 하도리 해안사구, 내도동 알작지, 한경면 고산리 해변, 안덕면 사계 해안사구, 성산읍 신산리 해변, 하효동 쇠소깍 해변 등 6곳에서 해안 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진행해 쓰레기 총 9654개 528.4kg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고 24일 밝혔다.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파편이 무려 3155개 수거돼 가장 많았다. 환경운동연합은 “매해 진행되는 제주줍깅 캠페인 조사결과와 결이 같은 상황으로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르게 미세플라스틱으로 변모하고 있을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그만큼 미세플라스틱으로 해안과 바다가 크게 오염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결국 플라스틱 해양쓰레기가

바다로 버려지는 것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수거관리에 힘써야 하는 상황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폐트병과 병뚜껑이 1193개 수거되며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폐트병과 병뚜껑은 기존에는 생활계 쓰레기로 여겨졌으나 선박에서 투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육상과 해상에서 모두 버려지는 쓰레기로 여겨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많이 발견되는 비닐봉지와 과자·라면 봉지 역시 마찬가지”라며 “주로 해변 관광지에서의 투기행위와 선박에서의 투기행위로 발생하는 만큼 관광지에 대한 쓰레기 투기 계도 및 단속 강화와 더불어 어업활동에서의 해양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업쓰레기로 분류되는 밧줄 및 끈류와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 부표도 다수 발견됐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어업쓰레기에 의한 영향이 적잖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어업쓰레기는 폐어구류가 다수기 때문에 해양 동물에게 다양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 밧줄이 ↓ 끈류는 해양 동물에게 휘감기거나 얹히는 피해를 줘 직접 피해를 가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쓰레기로 분류된다“며 특히 밧줄은 부표, 그물, 미끼, 바늘 등의 어구가 함께 버려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밧줄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그만큼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난해 제주줍깅 캠페인에서 1,2위를 다투던 담배꽁초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해양투기 행위도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에 더해 어업쓰레기 문제도 여전해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에 걸맞은 해양쓰레기 투기 예방과 수거관리 정책 개선이 이뤄지려면 해양환경부서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다면



<https://jeju.ekfem.or.kr>

<https://www.meis.go.kr>

제주 해안에서 많이 수거되는 해양쓰레기 종류



〈 차귀도 해안 〉



〈 PET 〉



〈 둥근부표 〉



〈 스티로폼 〉



〈 비닐 〉



〈 밧줄 〉



〈 통발 〉



〈 부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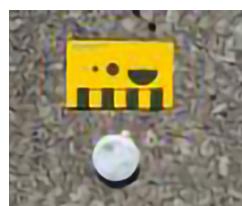
〈 라이타 〉



〈 부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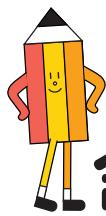
〈 유리병 〉



〈 병뚜껑 〉



〈 물통 〉



실천



청소년 화산탐사대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하는 바다대청소



국제 연안정화의 날에 동참하기

국제 연안정화는 매년 9월 셋째 토요일을 전후로 열리는 세계 최대의 해양환경행사이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자기가 주운 쓰레기가 어떤 종류인지 세계 공통조사카드에 기록한다. 바닷가에서 시작했지만 공원, 강가, 학교 주변으로 쓰레기 대청소 장소가 넓어지고 있다. 육지에 있던 쓰레기가 빗물을 타고 결국 바다로 가기 때문이다.

[청소와 기록의 원칙]

- 안전이 최우선
- 조사카드의 쓰레기가 어떻게 나누져 있는지 모둠원과 잘 살펴보고 시작한다.
- 조개껍데기, 해조류, 나뭇잎 등 자연물을 기록하지 않는다.
- 주운 쓰레기는 모두 기록한다.(최소크기 2.5cm이상)

모둠별로 작성한 조사카드를 바탕으로
아래의 질문에 답해보자.

① 전체 쓰레기는 몇개인가?

② 어떤 쓰레기를 가장 많이 주웠는가?

③ 제일 많이 발생된 쓰레기의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④ 제일 많이 발견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of Jeju



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in Korea

수집항목

이름 : _____

해안에 버려진 쓰레기는 담배꽁초 하나까지라도 다 주워야 합니다. 기록할 때는 아래 목록에 있는 종류의 수만 기록합니다. 하나씩 세면서 선을 그은 다음 합계를 원쪽 네모에 적어 넣습니다. 예 : 음료수캔 111 // 7

일상생활 및 해변 레크리에이션 활동

행락·스포츠·게임·축제 후 나오는 쓰레기, 길거리쓰레기, 폭우 때 밀려온 쓰레기 등

| 합계 | | 합계 | |
|---------------------|--------------------------|------------------|--------------------------|
| 일회용 스티로폼 음식 포장 | <input type="checkbox"/> | 각종 비닐 봉지 | <input type="checkbox"/> |
| 일회용 플라스틱 음식 포장 | <input type="checkbox"/> | 과자 봉지, 라면 봉지 | <input type="checkbox"/> |
| 일회용 종이 컵, 종이 접시 | <input type="checkbox"/> | 6개들이 포장고리 | <input type="checkbox"/> |
| 일회용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접시 | <input type="checkbox"/> | 풍선 | <input type="checkbox"/> |
|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등 | <input type="checkbox"/> | 옻, 신발, 모자 | <input type="checkbox"/> |
| 빨대, 젓는 막대 | <input type="checkbox"/> | 장난감 | <input type="checkbox"/> |
| 음료수 병(플라스틱) | <input type="checkbox"/> | 세제 용기 | <input type="checkbox"/> |
| 음료수 병(유리) | <input type="checkbox"/> | 폭죽, 불꽃놀이 용품 | <input type="checkbox"/> |
| 음료수 캔 | <input type="checkbox"/> | 휴대용 가스 캔, 스프레이 캔 | <input type="checkbox"/> |
| 병 뚜껑(플라스틱) | <input type="checkbox"/> | 농약병 | <input type="checkbox"/> |
| 병 뚜껑(금속) | <input type="checkbox"/> | 플라스틱 제품 포장 | <input type="checkbox"/> |
| 각종 뚜껑 | <input type="checkbox"/> | | |
| 캔 고리 | <input type="checkbox"/> | | |

해양 및 수로활동

레저용 보트, 어업용 선박 등 선박에서 나온 쓰레기

| 합계 | | 합계 | |
|-------------|--------------------------|--------------------|--------------------------|
| 미끼통, 미끼포장 | <input type="checkbox"/> | 전구, 형광등 | <input type="checkbox"/> |
| 플라스틱 부자 | <input type="checkbox"/> | 오일/운활유 통 | <input type="checkbox"/> |
| 스티로폼 부자 | <input type="checkbox"/> | 페비닐, 방수 천막 | <input type="checkbox"/> |
| 통발(개, 장어 등) | <input type="checkbox"/> | 밧줄 | <input type="checkbox"/> |
| 낚싯줄 | <input type="checkbox"/> | 노끈, 포장용 끈 | <input type="checkbox"/> |
| 낚시줄, 낚시바늘 | <input type="checkbox"/> | 양식용 화학약품 용기 | <input type="checkbox"/> |
| 가짜미끼, 형광찌 | <input type="checkbox"/> | 플라스틱(또는 고무) 주름관/호스 | <input type="checkbox"/> |
| 어망 | <input type="checkbox"/> | | |

흡연관련 활동

| 합계 | |
|----------|--------------------------|
| 담배/담배 꽁초 | <input type="checkbox"/> |
| 라이터 | <input type="checkbox"/> |
| 담배 포장지 | <input type="checkbox"/> |

투기활동

| 합계 | |
|---------------------|--------------------------|
| 전기 전자 제품 | <input type="checkbox"/> |
| 건축 자재(벽돌, 철근, 목재 등) | <input type="checkbox"/> |
| 타이어 | <input type="checkbox"/> |

의료

| 합계 | |
|-----|--------------------------|
| 약병 | <input type="checkbox"/> |
| 주사기 | <input type="checkbox"/> |

지역별 기타

항목에 없는 것 중 관심있는 것 기록

| 합계 | |
|----|--------------------------|
| | <input type="checkbox"/> |

외국 기인 쓰레기

외국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수입품 제외, 별지 사용 권장)

| 합계 | |
|--------|--------------------------|
| 국명, 항목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일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계속 쓴다 ‘규제 철회’

좌동철기자 2023.11.7.

| 환경부, 소상공인 부담 완화...규제 대신 ‘권고·지원’노선 변경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플라스틱 빨대도 당분간 쓸 수 있게 된다. 편의점 등에서의 비닐봉투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종료 하려던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 기간을 연장했다.

대상 품목은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등이다. 당장 과태료 걱정을 했던 커피 전문점과 편의점, 음식점 등은 한시름 놓게 됐다.

당초 정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제도 종료 시점은 미정이지만,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이유로 규제 대상 ‘권고·지원’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다만, 나무 이쑤시개와 나무젓가락에 대한 규제는 정상적으로 시행된다. 매장에서는 쇠젓가락이나 녹말 이쑤시개를 사용해야 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편의점에서 생분해성 봉투 대신 일반 비닐봉투를 쓸 수 있다는 우려에 “편의점 업계와 협약을 맺었기에 그런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국민 수준도 편의점에서 그냥 비닐봉투 달라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관은 또 “지자체 공무원 1명이 1만개 업소를 담당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위반·단속이 불가능하다. 정책 실요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뺨대 사용 금지도 무기한 연장됐다. 임차관은 “종이빨대는 가격이 플라스틱 뺨대의 2.5배 이상 비싼데도 쉽게 농눅해져서 음료 맛을 떨어뜨린다”며 이 때문에 커피 전문점은 비용을 들이고도 소비자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연장한 계도기간 동안 종이 뺨대 등 대체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할 방침이다.

종이컵은 다회용컵이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한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당장 금지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음식점과 거피전문점 등에서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인력이나 시설 설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다.

앞서 외식업계는 불경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제도 유예와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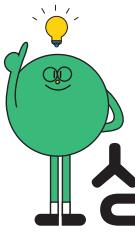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다면



<https://pfree.me>

<https://www.cosmo.or.kr>



생각 +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정부 정책은 더 퇴보하고 있어

VS

불경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부담이 심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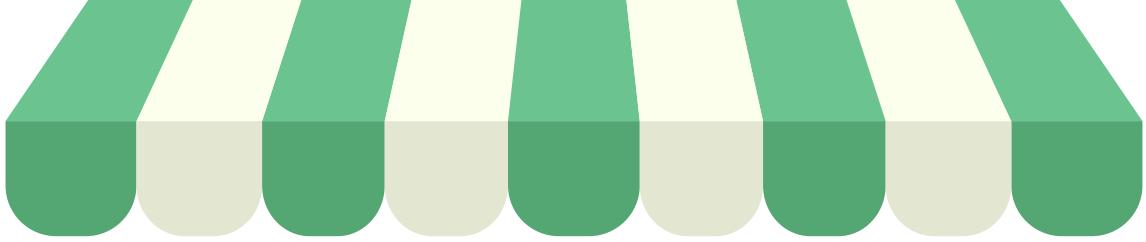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④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2개)

④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④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인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일회용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다시 22년 12월 2일에 도입되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2022년 12월 2일 선도지역(세종, 제주)부터 시작되었으나 일회용품 규제가 완화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 소송단 항소

전지혜 기자 2022.12.6.

|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 소송단이 이 사업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등봉공원 개발 예정지 _ 사진 ©연합뉴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이하 공익소송단)은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익소송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상 환경영향평가 시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종 조사를 누락한 것은 분명한 하자”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절차 위반인데, 재판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혼용해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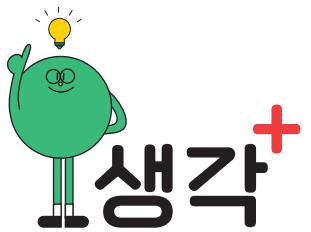
또한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반드시 참여하게끔 돼 있는 주민 대표가 누락됐는데, 재판부가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제주시의 일방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onhapnews.co.kr/>)]

알아두기

도시공원일몰제: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되었다.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앞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 계획을 인가하였다. 오등봉 공원을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가 오등봉 일대 76만 4천863㎡부지에 8천262억원을 투입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아파트)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오동봉 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휴식·여가의
공간으로 남겨둬야해

VS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오동봉 공원 부지를 제주시가
매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④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2개)

④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④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의 있습니다’



공익 소송에 대해 알아볼까요?

공익소송은 법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공권력이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등 사회적 이익이 주된 목적과 쟁점인 소송을 말합니다. 최초의 공익소송은 서울 ‘망원동 수해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한 망원동 주민들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비만 쏟아지면 가슴을 졸였습니다. 이 일대가 단골 침수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84년 9월 초에도 망원동은 물에 잠겼습니다. 330mm가 넘는 집중호우에 망원동 배수지 펌프장 수문이 붕괴돼 1만 8000여가구가 물에 잠기고 수만명의 인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한강이 역류해 발생한 침수 피해 였습니다.

망원동 주민들은 피해 한 달 뒤 배수지 관리책임이 있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망원동 수해는 단순한 천재지변이 아니라 서울시와 건설가가 배수지 시공 · 관리 잘못으로 생긴 인재라는 것이 망원동 주민들의 주장이었습니다.

1990년 8월 2일 대법원은 6년 가까이 이어진 ‘망원동 수재 사건’ 소송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망원동 수재는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다” 대법원은 수해를 입은 서울 마포구 망원동 주민 2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에게 승소를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재판을 지켜본 다른 망원동 주민들이 줄줄이 소송에 나섰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민은 1만 200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이들에게 모두 53억 2000여 만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공익 소송이 만든 변화들

청와대 100미터 앞 촛불행진 금지 취소 소송 승리

주민 피해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김포공항 소음 소송

서울시장의 쌈짓돈을 투명하게 공개한 서울시 판공비 공개 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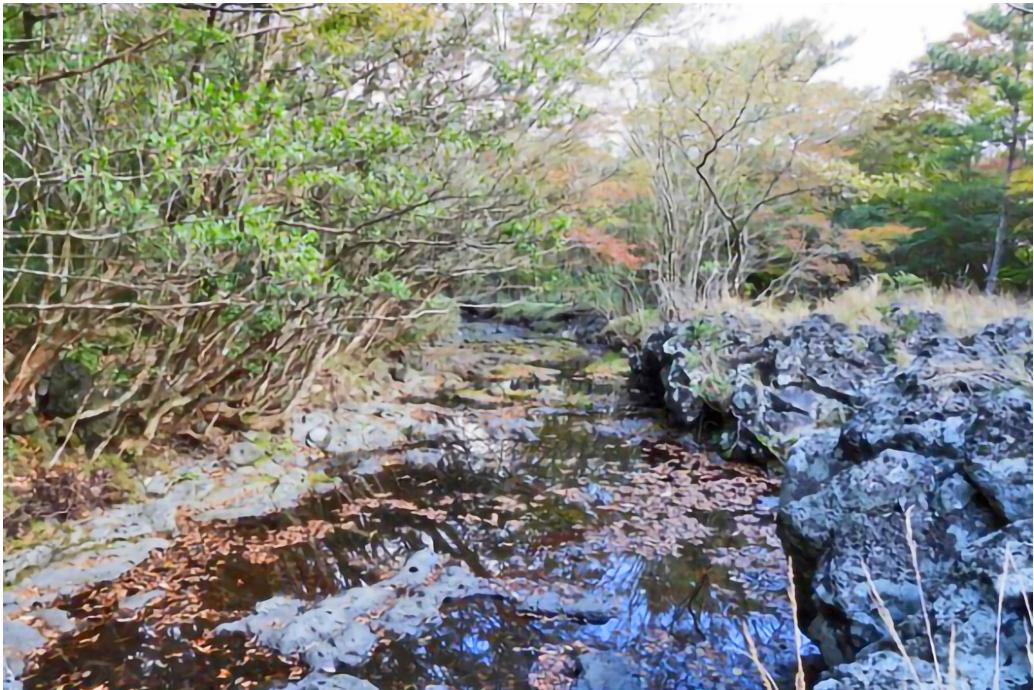
국회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 국회 회의록 공개 소송

성평등 운동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호주제 폐지 헌법소원

원형 훠손-생태계 파괴 논란 ‘천미천’ 하천 정비 중단

김찬우 기자 2022.12.07.

| 제주시, 천미천 하천정비사업 송당지구 사업 구간 제외 최종결정



천미천 상류 동배오름 인근 정비 예정지 _ 사진 ©제주환경운동연합

원형훼손과 생태계 파괴 논란이 불거진 제주 천미천 하천정비사업이 중단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 22일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송당지구 사업 구간을 제외, 중단키로 결정했다.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행정구역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제주시의 경우 2018년부터 하천정비 공사를 시작했지만,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올해 5월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정률은 72%며 이번 결정으로 제외된 송당구간은 천미천 하류 약 2.5km다. 남아있던 송당지구가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제주시 구역은 이번 달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제주시는 제주환경운동연합에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법정보호종이 확인된 천미천 송당지구 정비계획을 제외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8월 소규모영향평가를 통과한 천미천(구좌지구)지방 하천정비사업 제4교래교 상류사업은 하상정비가 일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하천변 수림보호 및 호안정비를 최소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제주하천정비사업에서 반환경적 사업을 철회한 첫 사례로 하천정비사업의 중요한 획을 긋는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천미천 하천정비사업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도민사회 목소리에 응답한 제주시의 결정에 깊은 환영의 뜻을 전한다“며 ”천미천 하류인 송당지구는 긴꼬리 딱새, 팔색조, 두견이, 원앙 등 멸종위기 여름 철새를 비롯해 다양한 야생동물의 이동통로와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으로 무분별하게 하천과 주변 식생을 파괴하던 하천정비사업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며 특히 친환경적 하천정비를 표방한 오영훈 지사의 공약 역시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제주시와 달리 서귀포시는 천미천 하천정비 구간에 대한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며 “서귀포시는 올해 말까지 토지보상 절차를 밟고 내년부터 8km에 달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모든 하천정비사업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자연 친화적이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내 하천은 국내 어디에도 볼 수 없는 특유의 경관과 가치를 지녔다. 도민 모두의 자산인 하천을 제대로 보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출처 : 제주의 소리(<http://www.jesusori.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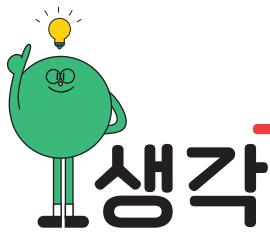
알아두기

천미천: 제주도에서 가장 긴 하천으로 한라산에서 중산간 마을인 교래, 성읍을 휘돌아 표선면 하천리까지 이어지는 하천으로 발원지는 돌오름 하류 해발 1,160m지경에 불과 한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실개천의 모습이다.

하천정비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하천정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다면





최근 기후위기 등으로 강수량
변동이 커지면서 하천이 범람해서
인근 피해가 심해지고 있어.
하천정비는 어쩔수 없는 행위야.

VS

하천정비공사로 인해
하천의 원형이 모두 사라지고
하천에 기대 살고 있는 동식물이
피해를 입고 있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④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2개)

④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④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주의 하천에 대해서 더 알아볼까요?

제주에는 육지부와 달리 '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은 물이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사시사철 유유히 흐르는 곳입니다. 제주에 물이 흐르는 하천은 해안 가까이에 있는 산지천, 외도천, 강정천, 솜반천 등 8개 정도를 제외하면 제주도의 하천은 돌무더기 형태로 존재하는 건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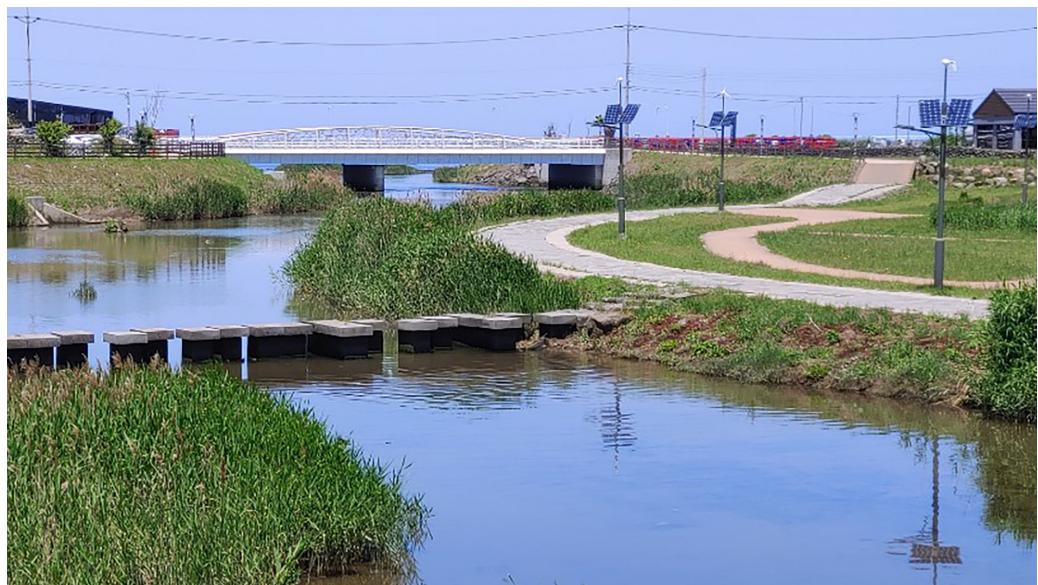
그래서 제주의 하천은 무미건조 할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외 지역과는 달리 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기암괴석과 거대한 소(沼), 하천변의 울창한 숲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 제주의 하천입니다.

143개의 하천이 한라산을 기점으로 하여 북쪽 바다와 남쪽 바다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형태를 한 제주의 하천은 제주의 혈관처럼 전역에 뻗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자연생태계 중 유일하게 단절되지 않고 고도별로 식물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곳이 제주의 하천입니다.

물이 귀한 제주 하천의 소(沼)들을 기대 약 40여종의 민물고기가 서식하고 있고 어류뿐만 아니라 양서파충류, 수서곤충이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을 먹으러 다양한 종류의 생들과 노루, 오소리 등 포유류가 물을 마시러 오는 오아시스 같은 공간입니다.

제주인들에게도 하천은 중요한 곳입니다.

하천은 식수를 구하는 곳이기도 했고 신앙의 장소였으며 어릴적 수영하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소마다, 기암괴석마다 이름이 있고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중천, 창고천, 외도천 등 하천 안이나 주변에서 선사 유적지가 발견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제주인에게 하천은 기댈 수 있는 자연 자원입니다.



알고 보면 새로운 하천 동·식물 사진



〈 버들치 〉



〈 긴꼬리딱새 〉



〈 줄새우아재비 〉



〈 개똥지빠귀 〉



〈 점망둑 〉



〈 장다리풀때새 〉



〈 버들참빗 〉



〈 노랑할미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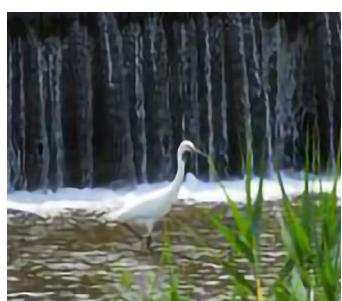
〈 모새나무 〉



〈 물총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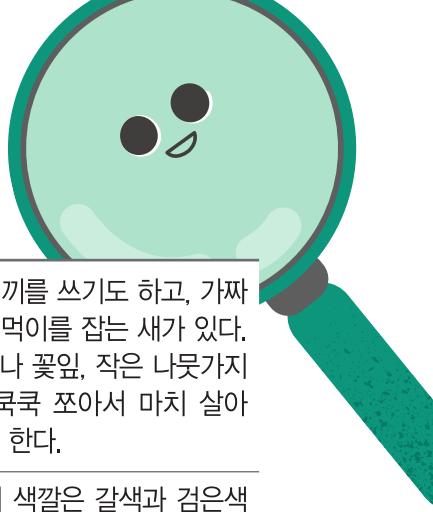
〈 중대가리나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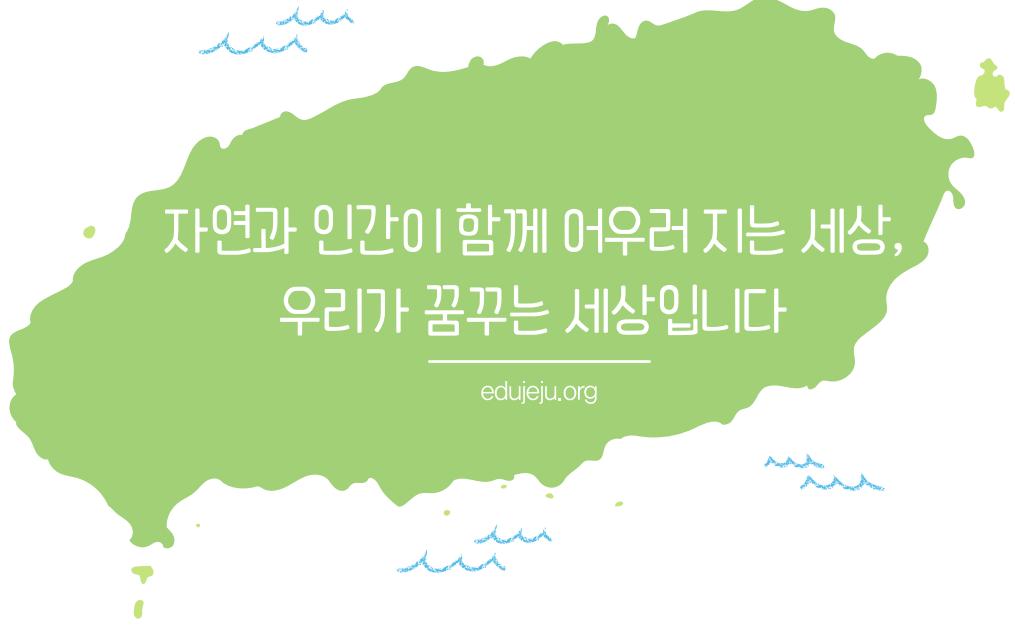
〈 쇠백로 〉



하천동·식물들의 생태를 찾아 우리 모둠만의 사전을 만들어 봐요.



| | |
|------------|--|
| 쇠백로 | 사람은 물고기를 잡을 때 바늘에 미끼를 웬다. 살아있는 미끼를 쓰기도 하고, 가짜 미끼(루어)를 쓸 때도 있다. 조류 중에도 루어 낚시를 하듯 먹이를 잡는 새가 있다. 백로과 새들이 그 주인공인데 이 새들은 먼저 식물의 잎이나 꽃잎, 작은 나뭇가지 같은 것을 수면에 띄워 놓는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을 쿡쿡 쪼아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서는 다가오는 물고기를 꿀꺽 한다. |
| 줄새우 아재비 | 속이 훤히 다 보이는 생물이 있다. 줄새우아재비인데 몸의 색깔은 갈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투명하다. 우리나라의 서해, 남부, 제주도에서 관찰되며 하천, 조간대에 가면 만날 수 있다. 줄새우아재비는 다른 어류나 조류의 먹이원이기도 하다. |
| | |
| | |
| | |
| | |
| | |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edujeju.org

신나는 환경놀이터



(사)제주환경교육센터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of Jeju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교육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의 대중화와 체계화를 통해 시민들의 생태적 가치관을 형성하여, 실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생태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하고자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 유아 생태놀이 “손심엉 혼디놀자”
- 숲과 함께 자라는 아이 “사계절 숲학교”
- 물과 불이 만든 화산섬 제주 “어린이 환경학교”
- 학교 및 기관 사회환경교육 “제주꾼의 초록이야기”
- 산림청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양성 기관
- 사회복지시설과 함께하는 숲체험 프로그램 “다시 숲”
- 유네스코 3관왕 제주, 만화공모전
-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제주환경교육 “play on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11, 2층

TEL 064-759-2164 E-mail edujeju@kfem.or.kr

http://www.edujeju.org

본 워크북은 환경보전협회 「2023년도 사회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 제주는
안녕한가요?



(사)제주환경교육센터